

가인과 아벨

-세 번째 이야기-



17Page

나 레 이 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 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이었어요. 두 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가 인 영차.. 하야.. 땅은 노력을 배신하지 않지. 오늘도 열심히 밭을
일궈볼까?

아 벨 그래.. 착하지.. 아이 참.. 간지러워 아하하하

나 레 이 셴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 되었어요. 땀 흘려 일한 가인은 많은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들였어요.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양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좋은 풀을 먹이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
주었어요.



18Page

나 레 이 셴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며 얻은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형 가인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고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가 인 하나님은 왜 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지? 저 녀석만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텐데.....

나 레 이 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질투가 온통 가인의 마음을
뒤덮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아벨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19Page

하 나 님 가인아,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 인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뭐 동생이나 돌보는
사람인줄 아세요? 저는 농사짓느라 바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하 나 님 가인아! 너는 지금 네 동생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나 레 이 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고 모르는 척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가인은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20Page

가 인 그래.. 아벨 너만 없으면..!! 예잇!!!

나 레 이 셴 가인은 아벨에게 달려들어 돌로 내리쳤어요. 아벨은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물었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어요.



21Page

-
- 하 나 님** 죽은 아벨의 피가 나에게 울면서 소리를 치는 구나!
너는 이제부터 땅에 씨를 심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게 될 것이다!
- 가 인**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곳을 떠나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말거예요.
- 나 레 이 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가인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죽고
말거라는 두려움에 사로 잡혔어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가인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셨어요. 가인은 슬피 울며 하나님의 땅을 떠났어요.
그 후로 가인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살던 곳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